



한림성심학보

2022 | 12월 제274호

발행일 2022년 12월 16일 금요일
한림성심학보사 (033)240-9309
전문대학혁신지원사업
LINC 3.0사업, HiVE사업
정부재정지원사업 3관왕
연간 75억원 수혜

우형식 발행인 | 이하영 주간 | 최지연 편집장 | 김가은 디자인 | 김성민 간사 | CBS 박정민 고문 | HALLYM POLYTECHNIC UNIVERSITY | 창간일 1988년 6월 22일

01

2022 한림성심 산학협력 EXPO
산학협력 엑스포(EXPO)
4개 부문 수상
관광외식조리과 국제요리
대회에서 금상 수상 쾌거
2023학년도 한림성심
대학교 신입생 모집

02 학교

비교과 프로그램 운영으로
즐거움과 자기개발의 기회 제공
지역과 함께하는 제28회 인형극
발표회 및 동아리제 열려
"간식먹고 임대차" 기말고사
기간 학생들을 위한 '간식데이'
행사 진행
제 14회 방사선(학)과
방사선의 날 성료

03 학교

제10회 2022학년도 현장실습
우수사례 발표 경진대회 개최
가속사를 제작하고 효율적이게!
'베스트로 콘테스트' 실시
더 나은 서클버스 이용을
위하여!
한림성심학보사! 강원CBS
견학가다!

04 문화

기자칼럼 : 문해력
부족의 탓 말고,
세대 간 소통이
필요해
찬반토론 : 법정
최고령 사항제도,
성심 찬반 토론!

05 사회

LINC 3.0 캡스톤
디자인 우수상 시각
영상디자인과 제로
스틱스
혁신지원사업 챌린지
프로젝트(SDGs) 특강

06 사회

카카오톡 마비가
지속된 이유는?
성탄절만 알고 있었나요?
12월의 다양한 기념일!
하잡의 진정한 의미
전기자 안전알까?
교수연구실 출입문
교체 공사

07 정보

대학생 자취방
고르는 꿀팁!
혹시, 나 번아웃
증후군인가?
강강한 녹음 먹고
기생충 감염?
겨울 분위기가 물씬~
트리 설치!
겨울철 코로나 재유행

08 종합

새로 선출된 제37대
총학생회장·부학생
회장을 소개합니다!
안전하게 겨울 보내기
한글의 달 맞아 심형서
공모전

09 종합

꼭 알아야 하는
공공정보 대처 방법
포근포근 미담 이야기
도서관 이말의 책
'새해에 읽어야 하는 책'
한림성심세이브!
학교를 지켜주세요!

10 종합기획

한림성심대 연간행사
우리 대학 재학생의 이름
관련 캠퍼스 조사
한 줄 격언, 공감한 가득

11 한빛광장

1년동안 학보를 위해
수고해주시는 학보사
구성원 소개와 소감문

12 웹툰

한림성심대의 한 해를
돌아보며

2022 한림성심 산학협력 EXPO



우리 대학은 2022 한림성심 산학협력 엑스포를
지난 11월 22일부터 24일까지 개최했다.



VR라이더, 드론, 3D프린터 등 4차 산업 기술 체험
과 취업, 창업 상담, 산학협력 특강, 전국대회 출품
작 전시 등을 진행했다. 이번 행사는 3년 만에 전면
오프라인 행사로 진행되었으며 기존의 이공계열
중심의 행사를 벗어나 보건 의료, 인문사회 계열
까지 확대되어 전체 학과가 참여했다. 우리 대학은
매년 산학협력 주간을 정해 다양한 분야를 체험
할 수 있는 엑스포를 진행하고 있으며 지난해
보다 대면 프로그램이 훨씬 더 많고 다양하게
즐길 수 있도록 늘렸다.

우형식 총장은 "산학협력단과 LINC 3.0 사업단,
혁신지원사업단의 성과물을 전시한다는 점에서
매우 뜻깊은 행사로 우리 대학의 경쟁력을 보여
줄 수 있는 자리"라며 "산학협력에 대한 신념과
비전을 공고히 하는 장이 되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우리 대학은 이번 엑스포 행사를 시작으로 전체
학과를 지역 산업과 연결해 갈수록 좁아지는
취업 시장에서 우위를 가져갈 예정이다.

오에스더 기자 esther005153@gmail.com
박윤아 기자 parkyuna1211@naver.com

산학협력 엑스포(EXPO) 4개 부문 수상

우리 대학은 LINC 3.0사업단과 학과가 참여한
'2022 산학협력 EXPO'에서 LINC 3.0 캡스톤
디자인 경진대회에서 한국연구재단 이사장상(
우수상), 가상 투자대회(캡스톤디자인 옥션마켓)
에서 우수 옥션왕, 꿈의 기업 입사 프로젝트 링크
루트(LINC 3.0 Recruit)에서 장려상, 온라인
성과전시 경진대회에서 우수상을 수상하였다.

성과전시의 활성화를 통한 대국민 홍보 및 관람객
이 직접 참여하는 산학협력 EXPO 개최를 목적
으로 진행된 '2022 산학협력 EXPO'는 교육부
가 주최하고 한국연구재단이 주관하였고, 올해에는
'동행하는 산학협력, 미래로 연결하는 플랫폼'이라
는 주제로 약 150개 대학의 사업단이 참가했다.



2022 산학협력 EXPO에 참여한 LINC 3.0 사업단과 교수님과 학생들

캡스톤디자인(창의적 종합 설계)이란 1-2학년
동안 배운 전공교과목 및 이론 등을 바탕으로
산업계 및 사회가 필요로 하는 과제를 대상으
로 학생들이 스스로 기획과 종합적인 문제해결을
통해 창의성과 실무능력, 결속력(팀워크), 지도
력(리더십)을 배양하도록 지원하는 정규 교과목
을 뜻한다.



시각영상디자인과 '제로스틱스'의 출품작 'WITH BOX'

우선 참가학과 중 하나인 시각영상디자인과는
6인으로 구성 된 제로스틱스(Zerostics)라는
팀을 결성, '공공서비스디자인-제로웨이스트
를 위한 다회용기 사용 활성화 방식(WITH-
BOX)'을 제안해 캡스톤디자인 교과목의 작품
들로 진행된 캡스톤디자인 경진대회에서 한국연구
재단 이사장상(우수상)을 수상함과 동시에 관람객
을 대상으로 가상투자를 진행하는 캡스톤디자인
옥션마켓에서 우수 옥션왕에 올랐다.



방사선과 학생이 제품에 대해 설명하는 모습

또 다른 참가학과인 방사선과는 아쉽게도 수상은
하지 못 하였지만, 방사선이 직접 발생되지 않기
때문에 방사선 피폭위험이 없고 실습이 자유로워
향후 전국의 방사선과와 중-고등학교 과학 실험
실습 교과목에서 활용될 수 있는 실습용 모의
방사선 발생장치를 시연하여 눈길을 끌었다.

그리고 꿈의 기업 입사 프로젝트 링크루트(LINC
3.0 Recruit)는 LINC 3.0사업 참여기업이 대학생
들을 대상으로 공개면접을 실시하여 현장에서
우수 인재를 직접 채용하는 행사로 우리 대학
LINC 3.0사업단에서는 보건환경과 2학년 학생
3명이 참여기업인 Ⓢ청명기연환경의 공개면접
에 참여했고, 참여학생들은 우수한 성적으로 현장
에서 채용되는 기회를 얻었다. 특히, 조윤신 학생,
김지우 학생, 김민수 학생은 장려상을 받아 참가
학생 전원이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관련기사 5면 김성민 간사

관광외식조리과 국제요리대회에서 금상 수상 쾌거



요리 심사를 받는 관광외식조리과 학생들

우리 대학 관광외식조리과 학생들은 사단법인
한국조리협회가 주관하는 '2022 KOREA 월드
푸드챔피언십 요리대회'에 참가하여 수상했다
고 지난 10월 31일 전했다.

10월 28~29일 양일간, 서울 양재동 aT센터 전시장
에서 진행된 이번 대회에는 약 2,500여 명이 참가
하였고, 5인 1조로 출전한 라이브 부문에서 우리
대학 관광외식조리과 학생들은 2개 팀이 참가하여

금상(2학년)과 동상(1학년)을 각각 수상했다. 학생
들은 두 달 정도 수업 외 시간을 쪼개어 아이디어
회의, 식재료 연구, 다양한 조리방법 실험, 시제품
만들기, 시식 및 평가, 문제점 발견, 수정 및 보완
작업을 거치면서 수십 번의 시행착오를 통해 강원
도의 향토색을 살린 건강메뉴를 완성하여 심사위원
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았다.



관광외식조리과 금상 수상

금상을 수상한 2학년 대표 주영중 학생은 "요리
대회 준비과정에서 어려움도 많았지만 팀원과의
협업과 자신감, 그리고 무엇보다 교수님들의 헌
신적인 지도로 좋은 결과를 얻었다고 생각하며,
앞으로 현장에서 메뉴 개발을 하는데 잘 활용할
것"이라고 소감을 말했다고, 동상을 수상한 1학년
대표 김재은 학생은 "금상을 받은 선배들이 자랑
스럽고, 저희도 더 열심히 준비해서 내년에는 꼭
금상을 따겠다"라는 포부를 밝혔다. 아울러 본 대
회에서 고등부 심사위원으로 활동한 관광외식조
리과 송청락교수는 공정하고 엄격한 심사를 통해
대회의 공정성과 요리대회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우수심사위원상을 수상했다.

김성민 간사

2023학년도 한림성심대학교 신입생 모집



모집구분	원서접수	합격자발표
정시	2022. 12. 29 ~ 2023. 01. 12	2023. 01. 31

입학정원 총 859명

사회복지과 40명 / 유아교육과 64명 / 행정실무과 36명 / 바리스타제과제빵과 40명
호텔조리과 42명 / 식품영양과 30명 / 간호학과 128명 / 물리치료과 50명 / 방사선과 40명
치위생과 55명 / 의무행정과 53명 / 산업보건환경과 30명 / 건축디자인과 35명 /
건설도시과 36명 / 디지털미디어콘텐츠과 36명 / 전기공학과 36명 / 레저스포츠과 36명
시각영상디자인과 36명 / 영상미디어콘텐츠과 36명

일송학원 산하 5개 병원 보유
(한강, 강남, 춘천, 동탄, 한림대학교성심병원)

다양한 장학금 지급

(1인당 396만원 : 2021년 정보공시 기준)

정부 재정지원사업 선정으로 연간

약 75억원 이상의 정부지원금 수혜

비교과 프로그램 운영으로 즐거움과 자기계발의 기회 제공



필라테스 강좌

우리 대학은 코로나19와 학업으로 피로해진 학생들의 마음건강 증진을 위해 「Bravo my life, 樂」, 「한림성심인을 위한 마음건강 증진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한편, 재학생들이 전공을 넘어서 다양한 자기계발 방법을 모색할 수 있도록 「(AI)융합 영어 프로그램」, 「창의융합 교육과정」과 같은 다양한 비교과 프로그램 강좌를 진행하고 있다.

우리 대학 혁신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진행하는 「Bravo my life, 樂」 프로그램은 지난 11월 11일부터 12월까지 ▲바리스타 과정 ▲필라테스 과정 ▲명상 과정 등 교과과정 이외의 프로그램을 통해 학생들이 휴식 속에서 자신을 성찰하고, 활력을 채워 넣으며 자기계발을 할 수 있는 강좌를 운영하고 있다.

바리스타 과정은 바리스타 이론과 실습 입문 강좌를 운영하며, 재학생을 대상으로 바리스타 과정의 이론 및 실습을 주제로 진행된다. 또한 필라테스 과정과 명상 과정을 통해 학생들의 학업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전공 외의 교양강좌를 운영함으로써 학생들이 자기계발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특히 필라테스 강좌에 참여한 물리치료과 학생은 “필라테스 과정에 참여하면서 근육의 쓰임새에 대해 다시 알게 되어 물리치료 공부를 하는데 있어 많은 도움이 된다.”라며 “교과 과정 이외의 교양과정을 통해 스트레스도 해소하고, 학과 공부에 참고할 수 있어 좋다.”라며 만족감을 나타냈다.



마음 평화 향수 만들기

이와 더불어 우리 대학은 ‘한림성심인을 위한 마음건강 증진 프로그램’을 11월 15일부터 2주동안 진행했다. 프로그램은 마음 평화 향수 만들기와 안티스트레스 아로마테라피 강의를 통해 등록금, 취업, 장래에 대한 압박 및 불안감 등 마음건강 위해 요인에 노출된 학생들에게 정신적으로 힐링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학생들이 학업에 정진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고 있다.

또 4차산업혁명시대에 발 맞춰 영어에 자신이 없는 학생이 AI튜터와 영어 학습을 할 수 있는 「(AI)융합 영어 프로그램」, 유튜브 크리에이터, 빅데이터와 관련된 「창의융합 교육과정」강좌와 같은 비교과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학생들이 전공을 넘어서 자기계발을 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김보영 혁신지원사업팀장은 “비교과 프로그램에 참여한 학생들의 강좌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알고 있다.”라며 “학생들이 다양한 비교과 강좌 프로그램을 통해 마음건강을 증진하고, 본인의 전공을 넘어서 다양한 자기계발 방법을 모색하고 활용했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김성민 간사

“간식먹고 힘내자!”

기말고사 기간 학생들을 위한 ‘간식데이’ 행사 진행



간식주머니를 학생들에게 제공하는 모습

우리 대학은 12월 5일 교내 도서관에서 기말고사 기간 학업에 열중하는 학생들을 격려하고, 학습의욕을 고취하기 위해 ‘간식데이’ 행사를 진행했다.

우리 대학은 매년 중간·기말고사 기간에 총학생회가 주관하여 시험 및 과제, 취업준비 등으로 학업에 매진하는 학생들을 격려하기 위해 ‘간식데이’ 행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이번 행사는 간식 주머니 200개를 준비하여 기말고사 기간인 12월 5일(월) 20시부터 한빛도서관 열람실 등에서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제공했다.

제36대 총학생회 ‘도아’의 지예슬 회장은 “이번 ‘간식데이’ 행사는 제36대 총학생회 ‘도아’의 공식적인 마지막 활동인 만큼 성심껏 준비했다.”라며 “이번 행사를 통해서 학생분들의 힘든 학업 활동에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김성민 간사

지역과 함께하는 제28회

인형극 발표회 및 동아리제 열려



인형극 발표회 및 동아리제

우리 대학 유아교육과는 지난 11월 4일 교내 한림유치원 강당에서 춘천지역 13개 유치원 및 어린이집 300여 명의 아동을 초대해 제28회 인형극 발표회 및 동아리제를 진행했다.



인형극 발표회

올해로 28번째를 맞는 유아교육과 인형극 발표회는 지역사회 유아교육기관과의 상생과 유아교사로서 갖추어야 할 능력 배양을 위해 마련되었으며,



음악동아리 ‘맑은소리’ 팀

춘천지역 어린이와 함께하는 축제의 장으로 열리고 있다.

발표회는 오전 10시 30분과 오후 1시 30분 총 2회 진행되었고, 인형극은 어린이와 함께하는 율동과 유아교육과 음악동아리 ‘맑은소리’팀의 우쿨렐레 공연이 이어져 다양한 즐거움을 선사했다.

김성민 간사

제14회 방사선(학)과 방사인의 날 성료



방사선학과 방사인의 날



중앙님의 말씀을 경청 중인 방사선과 학생들

우리 대학 방사선(학)과는 지난 11월 10일 교내 도현대강당에서 학과 관련 직업에 대한 지식 함양과 논문 발표를 통한 연구능력 배양을 목적으로 제14회 방사선(학)과 방사인의 날 학술제를 진행했다.

올해로 14회를 맞이하는 방사선(학)과 1~4학년 재학생 200여 명을 비롯한 교내외 내빈이 참여한 가운데 우형식 총장의 축사 및 오프닝 영상을 시작으로 ▲21세기 바른 정형외과 의원 대표의

장학금 수여식 ▲3·4학년 재학생들의 논문 발표 ▲1·2학년 학생들의 축하공연의 순서로 진행됐다. 이날 논문 발표에는 조별로 총 12편의 논문을 발표하였고, ‘Mortise 촬영법 보조 기구 제작에 대한 연구’, ‘보건계열 신입생의 MBTI 성격유형에 따른 스트레스 정도 및 대학생활 적응’과 같은 연구주제를 비롯하여 방사선학에 대한 심도 있고 폭넓은 연구논문 발표가 이어져 눈길을 끌었다.

한용수 방사선(학)과장은 “COVID-19라는 유례없는 어려운 교육환경 속에서 우리 방사선(학)과 학생들의 열정으로 3년 만에 전 학년이 참여하는 제14회 방사선(학)과 학술제를 열 수 있어 기쁘다.”라며 “학생들의 12편에 대한 학술논문 준비과정에서 무한 가능성과 열정이 발휘되는 모습들을 보면서 스스로 빛낼 수 있는 훌륭한 인재가 되리라 확신했고, 오늘 이 행사가 화합과 발전의 장이 되길 바라며 학과를 대표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라고 말했다.

김성민 간사

제10회 2022학년도 현장실습 우수사례 발표 경진대회 개최



현장실습 우수사례 발표 경진대회 시상식



현장실습 우수사례 발표

우리 대학은 지난 11월 9일 본관 2층 202호 강의실에서 제10회 '2022학년도 현장실습 우수사례 발표 경진대회'를 개최했다.

올해로 10번째를 맞는 이번 경진대회는 LINC 3.0 사업 및 혁신지원사업의 일환으로 학과별 현장실습 우수사례 발표를 통한 우수성과 공유와 참여 학생들간의 정보 교류, 의견 수렴을 통한 현장실습 운영 방안 개선을 목적으로 개최되었

으며 11월 9일과 11월 16일 양일에 걸쳐 진행됐다. 이번 대회의 총 상금은 362만원으로 PPT 발표 분야 외에도 사진·캐치프레이즈 분야도 추가로 진행되었으며, 11월 9일 경진대회에는 LINC 3.0사업 참여 학과 학생들의 발표가 진행됐고 16일에는 혁신지원사업 참여 학과 학생들의 발표가 진행됐다. 경진대회의 시상은 우리 대학 산학협력 주간인 11월 23일에 이뤄졌다.

권흥민 현장실습지원센터장은 “전문대학 직업 교육의 일환으로 현장실습 경험은 학생들의 동기 부여와 목표 생성을 위해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라며 “학생들이 이번 경진대회를 통해 다른 학생들과 경험을 공유하고, 현장실습의 경험을 바탕으로 졸업 후 취업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김성민 간사

기숙사를 쾌적하고 효율적이게! '베스트룸 콘테스트' 실시



베스트룸 수상자들과 책임사감선생님

기숙사에서 학생들은 자신의 방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그리고 쾌적하게 공간을 잘 활용하고 있는지 평가를 하기 위해 '베스트룸 콘테스트'를 실시, 자발적으로 신청을 받은 결과 총 3개의 팀을 선정하였고 지난 11월 21일(월)에 시상식을 진행하였다.

부상으로는 1등이 대학식당 식권 15장과 상점 3점씩, 2등은 식권 12장과 상점 2점씩, 3등은 식권 9장과 상점 1점씩이 부여되었다. 참여했던 학생들은 상금의 많고 적음보다 이런 소소한 이벤트를 통해 함께 방을 쓰는 친구들과 친목을 다지고 기숙사 생활의 즐거움을 얻는 것이 더 큰 가치라고 이야기하였다. 1등부터 3등까지 여자 학생들의 호실이 차지하였고, 깨끗하게 정리한 남학생 참가 호실도 있었으나 안타깝게도 입상은 하지 못하였다.



베스트룸 콘테스트 시상식

행사를 진행하였던 김은정 사감은 “학생들의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에 감사드리고 평소 청소와 정리 정돈을 잘 하는 친구들이었지만, 코로나 시대가 도래하고 더욱더 위생에 신경을 쓰는 친구들이 많아졌다. 대학 측에서도 이러한 측면에서 좀 더 신경을 써야 할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김성민 간사

한림성심학보사! 강원 CBS 견학가다!

한림성심학보사는 지난 11월 23일 춘천시 서면에 위치한 '강원 CBS'를 견학하였습니다.



강원 CBS 견학

학보사의 고문을 맡고 계신 '강원 CBS 박정민 국장'님의 친절한 안내 하에 진행된 이날의 견학은, 진유정 기자님의 시설 소개와 박정민 국장님의 글쓰기 특강으로 구성되어 약 1시간 30분에 걸쳐 진행되었다. 많은 기자가 참여하고 싶어했으나 인솔 주간교수님과 간사를 제외하고 발 빠르게 신청한 기자 4명만 참여할 수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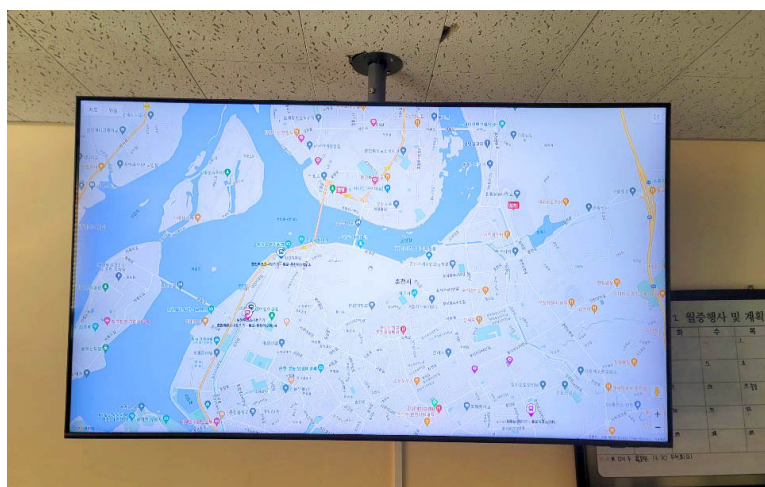
CBS 박정민 국장님의 특강

김성민 간사는 “방송과 학보는 말이나 글로 정보를 전달하고 자신의 생각을 표현한다는 점에서 닮아있다.”라며 “이번 견학 프로그램이 학보사 기자들의 견문을 넓히고, 글로써 정확하게 자신이 원하는 대로 표현하는 방법을 배우는 기회가 되었을 것이라 생각한다.”라고 프로그램 계획 취지와 소감에 대해 이야기하였다.

학보사 기자들의 역량을 키우기 위한 이러한 프로그램은 현장견학과 특강 등으로 구성되어 올해 1학기부터 진행되어 왔으며, 내년도에는 한림성심방송국 부원 등 교내 언론 보도와 관련된 학생들로 대상을 확대하여 보다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학생들의 글쓰기와 말하기 능력을 향상시키고자 계획하고 있다.

김성민 간사

더 나은 셔틀버스 이용을 위하여!



실시간으로 셔틀버스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모니터



한림성심대학교 셔틀버스

우리 대학 학생지원팀에서는 학생들의 대학 셔틀버스 이용에 대한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담당자에 따르면 학생지원팀에서는 올해 초 Hello버스 통학버스 관제시스템을 도입하여 학생들은 앱을 통해서 버스 위치, 도착정보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버스 위치와 이동 노선, 탑승시간 등과 관련한 민원이 간혹

들어왔다고 하는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수시로 버스 위치를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이를 위해 최근 부서 내 대형 모니터를 설치, 실시간으로 확인이 가능한 시스템을 구축하였다고 하여 방문해 보았습니다. 모니터는 모든 부서원들이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위치에 설치되어 있었고요, 학생들의 편의를 위해 노력하는 모습이 역력해 보였습니다. 이제 더 나은 셔틀버스 이용을 기대해도 되겠죠? 앞으로도 학생 편의를 위한 다양한 활동과 노력을 기대해 봅니다.

김성민 간사



문해력 부족의 탓 말고, 세대 간 소통이 필요해

요즘 10·20대의 부족한 문해력 문제에 대해 다루는 기사나 영상들이 많다. 보통 사람들 입장에서 당연히 알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 단어나 의미들을 요즘 세대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 여러 논란이 일고 있다. 최근 서울에 한 카페에서 웹툰 작가 사인회를 진행하였는데 예약 과정에서 시스템 오류가 발생하자 담당자가 SNS에 “예약 과정 중 불편을 끼쳐 드린 점 다시 한번 심심한 사과 말씀드립니다”라고 사과문을 올렸다. 이 글이 올라가자, SNS 사용자들은 “사과를 심심하게 하는 것이 맞느냐”라고 하는 반응이 있었는데, ‘심심하다’라는 뜻을 ‘하는 일이 없어 지루하고 재미가 없다’라는 뜻으로 이해한 것이다. 여기서 카페 운영자가 뜻한 의미로는 ‘마음의 표현 정도가 매우 깊고 간절하다’라는 의미의 ‘심심’

이었다. 이에 관해서 운영자가 해명하자 일부 사용자는 “왜 어려운 한자어를 써서 헷갈리게 만드냐?”라는 반응을 하기도 하였다. 이 부분이 과연 한자어를 쓴 카페 운영자의 잘못일까?



시대가 지나면서 어려운 단어를 쓰지 않고, 쉽고 편하고 재치 있는 단어를 쓰게 되어가고 있다. 실제로 이런 신조어 등을 계속 사용하다 보면 표준

어로 등록되는 일도 있으니 말이다. 그렇다고 해서 이전에 계속 사용해왔던 단어에 대해 “왜 이런 말을 쓰는 것인가?”라고 의문을 가지고 배척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한다. 모르는 단어가 나왔을 때 뜻을 찾아보고 사용할 수 있는 표현의 범위를 늘려가는 것이 개인의 발전을 위해서도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반대로 어떤 단어를 모른다고 해서 무식하고 멍청하다고 취급하는 사람도 있기 마련인데 이 부분도 문제라고 생각한다. 앞으로 시대가 지나면서 지금 쓰는 단어들이 미래에는 사용되지 않을 수 있는데 그때 우리 후손들에게 무식하다고 할 수 없지 않은가? 여기서 중요한 것은 기성세대와 현재세대 간의 의사소통이라고 생각한다. 요즘 인터넷을 보다 보면 논쟁을 하기보다는 비대면 공간에서 다툼을 하고 있는 듯

하다. 특히 뉴스나 유튜브의 댓글 그리고 커뮤니티의 글을 읽으면 시비의 포인트를 찾아 공격하는 경향이 많다. 내가 댓글로 의견을 냈을 때, 댓글의 내용에 반박하기 보다 맞춤법을 틀린 것을 물고 늘어지는 경우를 예로 들 수 있다. 상대방이 나의 의견과 다르다고 생각할 때, 무작정 비판을 하기보단 내가 아는 것이 정확한지 한번 체크하고 상대방에게 친절하게 알려주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올바른 소통 문화를 만들어가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 칼럼을 읽는 여러분들도 혹시 이런 일이 있을 때 잘 모른다고 비판하거나 어려운 단어를 쓴다고 비판하기보다 모르는 것이 있으면 알려주는, 서로를 이해하고 소통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길 바란다.

김지석 기자 ging2525@naver.com

법정 최고형 사형제도, 성심 찬반 토론!



찬성측



반대측



× 최지연 기자:

사형을 선고받았음에도 실질적인 집행이 이뤄지지 않아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의 낭비를 계속하기보다, 실제 집행 가능한 형벌로 대체하는 것이 사회적인 비용 문제와 집행 가능성에 현실적 대안이라고 생각합니다. 한국 형사정책 연구원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사형제도의 운용

실태를 분석한 결과 1998년 이후 현재까지 단 1건의 사형집행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를 통해 현재 우리나라에 법정 최고형으로서 사형 제도는 존재하지만 실질적인 집행은 없는 수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사형제도의 존치에 반대합니다.

○ 김지석 기자:

흉악범을 사형을 시키지 않는다면 무기징역과 같은 형태로 복역시킬 수밖에 없는데, 이는 독방을 쓰고 노역을 하지 않는 사형수의 유지 비용보다는 비용이 많이 들고, 법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아도 20년 이상 형기를 채우고 모범적인 생활을 하면 가석방 심사 대상에 포함될 수 있어서 사회로 다시 돌아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실제로 법무부가 공개한

‘2022 교정통계연보’에 따르면 매년 10명 이상의 무기징역 수형자가 사회로 복귀하고 있기 때문에 흉악범이 다시 사회에 나와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2021년도의 강력 범죄 재범률은 50%에 육박하며 피해자를 찾아가 보복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의 정부가 사형제도를 정비해 다시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오에스더 기자:

형벌의 본질이나 목적이 법적 보호 및 범죄인의 반사회적 성격을 개선해 사회로 다시 복귀시키는 데 있다는 목적에 의해 과하는 형벌입니다. 그러나 사형은 인간의 개선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부인하며 개선 기회조차 주지

않는 것입니다. 국가는 그가 갱생할 가능성을 부정해선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형수의 개선 가능성이 과연 거짓이라고 확신할 수 있는지, 그가 사회로 돌아가기 전에 장담할 수는 없는 것이라고 생각하기에 사형제도의 존치에 반대합니다.

○ 이채은 기자:

사형은 범죄를 저지르기 전에 다시 생각할 수 있도록 하는 강력한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수십 명의 사형수가 판결을 받고 방치된 사이 우리 대한민국의 살인범죄는 30%가 증가되었습니다. 사형제도를 실질적으로 시행한다면 살인범죄 예방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헌법 제10조에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지닌다.>라고 쓰여있습니다. 사형수의 기본권인 생명권을 침해한다고 하지만 사형수는 이미 다른 사람의 생명권 또는 존엄과 가치를 깨뜨린 장본인이므로 극악무도한 범죄자에 한해 국가의 이름으로 집행되는 것은 정의의 실현이라 볼 수 있습니다. 인간이기에 오판 가능성은 인정하지만 법관이 증거를 수집하고

사형이 결정되기까지는 적정 절차의 원리, 신속한 재판의 원칙 등에 한해 오판 가능성이 매우 적습니다. 우리나라 헌법 제37조 2항은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어느 정도 제한할 수 있다’라고 쓰여있으며 헌법 제110조 4항은 ‘사형을 선고한 경우...’라고 적혀있습니다. 이는 헌법에서 직접 사형을 언급한 경우입니다. 또한 헌법재판소에서도 사형제도가 합헌이라 했으며 결정문에서 “사형제도는 현행 헌법이 예상하고 있는 형벌의 한 종류이며 헌법 테두리 안에서는 특정 인간의 생명권 역시 타인의 생명권 보호나 중대한 공익을 위해 제한하는 것이 허용될 수 있다”라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사형제도를 찬성하는 입장입니다.

× 박윤아 기자: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인간의 기본권인 생명을 함부로 빼앗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오판의 가능성을 열어두고 만약 사형을 집행하였는데, 진범이 따로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무고한 생명을 잃을 수 있습니다. 또한 형

벌의 목적은 범죄자를 교육하여 새 사람이 되도록 만들자는 취지인데, 사형을 시킨다면 형벌의 목적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사형제도를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 박경희 기자:

국가는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특수한 상황에 따라서 사형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는 25년 동안 실질적으로 사형을 집행하지 않음에도 20명을 살해한 유영철 사건(2003), 총기 난사로 5명이 사망한 임병장 사건(2014) 등 흉악 범죄는 꾸준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인도적인 차원에서 범죄자의 생명도 존중받아 마땅하지만, 타인의 생명을 침해한 사람이 억울하게 목숨을 잃은 사람보다 생명권이 우선시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오판 가능성과 생명권 등의 이유로 사형제도를 반대하기보단 시대적 상황이 반영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과거에는 국가보안법을 위반했다는 혐의로 살인죄와 동등하게 사형을 집행했지만, 현대 사회가 요구하는 사형제도는 정치범이 아닌 타인의 목숨을 앗아가는 흉악 범죄를 처벌하고 예방하는 것입니다. 지난해 실시된 여론조사에 응답자의 77.3%가 사형제도 유지에 찬성했습니다. 이처럼 사형제도는 사회의 질서를 유지하는 수단이기 때문에 찬성하는 바입니다.

× 강수민 기자:

모든 판결에는 오판 가능성이 없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판결로 사형이 선고되었는데 시간이 지난 후 무죄를 입증했다면 너무 억울할 것입니다. 실제 오판의 대표적 사례 중 인민혁명당 사건이 있습니다. 1974년 4월 군사독재에 맞서 대학생들이 결기하자 당시 중앙정보부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23명을 구속 기소했으며 법원은 이 중 8명에게는 사형, 15명에게는 무기징역 및 징역 15년의 선고한 사건입니다. 하지만 2002년 9월 이 사건을 고문에 의한 조작된 것으로 발표하면서 같은 해 12월 사형당한 유족들

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재심을 청구하였습니다. 2005년 12월 재심이 시작되었고 2007년 1월 23일 선고 공판에서 사건에 연루되어 사형이 집행된 우홍선 등 8명 전부에게 무죄를 선고해 명예를 회복시켰고 국가는 유족들에게 520억을 배상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 극악무도한 범죄인들을 보면 사형이 지당한 것 같지만 만약 그가 진범이 아니라고 할 때에 과연 이를 어떻게 돌이킬 수 있겠습니까? 불완전 인간에 의한 재판으로 돌이킬 수 없는 사형을 과하는 것은 지나친 오만입니다. 따라서 사형 제도에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 심원보 기자:

검찰청&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마지막으로 사형 집행이 이루어졌던 1997년의 전체 형법 범죄는 865건입니다. 반면 2020년도에는 2,015건으로 2배가 넘는 차이로 크게 늘어났습니다. 이는 실질적으로 사형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범죄에 대한 경각심이 낮아져서 생긴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사형제도를 국민의 생각과 맞는 방향으로 다시 수정하여 범죄를 쉽게 저지를 수 없도록 사회 질서를 바로잡아야 하겠습니다. 또한, 오판

의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는데 과거에는 CCTV와 국과수 제도 등 객관적인 증거가 없었기 때문에 수사 결과가 정확하지 않았습니다. 현재는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객관적인 증거들을 많이 확보할 수 있기에 가해자의 살인에 대한 명백한 증거가 있다면 법정 최고형인 사형으로 살인에 대한 책임을 지게 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생명을 함부로 빼앗아 피해자의 인권을 무시한 범죄자에게 인권을 보장해 준다는 것은 모순적이라고 생각합니다.

LINC 3.0 캡스톤디자인 우수상 시각영상디자인과 제로스틱스

2022년도 전문대 LINC 3.0 캡스톤디자인 전국 경진대회에서 한림성심대학교 시각영상디자인과 제로스틱스팀이 우수상을 수상하였다. 한국연구재단이 주최한 LINC 3.0 캡스톤디자인 전국 경진대회의 수상은 지난 11월 2일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진행되었으며 제로스틱스 팀은 본교 시각영상디자인과 21학번 여수안, 박수경, 문희주, 박채원, 이기쁨, 장수진 학생과 이재공 교수의 지도로 더불어 이뤄낸 성과이다. 제로스틱스 팀과 인터뷰를 진행해 보았다.

Q 제로스틱스 팀의 소개 부탁드립니다.

A. 안녕하세요. 한림성심대학교 시각영상디자인과 2학년 6명으로 구성된 팀 제로스틱스(Zero-sticks)입니다. 팀원은 여수안, 박채원, 이기쁨, 박수경, 장수진, 문희주이며, 지도 교수는 이재공 교수님입니다. 팀명 제로스틱스에는, 막대기를 뜻하는 'stick'들이 모인 팀이라는 뜻이 내포되어 있으며, 플라스틱을 'zero'로 만든다는 포부도 담고 있습니다.

Q 2022년도 전문대 LINC 3.0 캡스톤디자인 전국 경진대회는 어떤 대회인가요?

A. 캡스톤디자인 전국 경진대회란, 학생과 기업이 만나 우수한 성과를 만들어 내는 혁신적이고 미래 지향적인 대회입니다.

Q 제로스틱스 팀은 어떤 결과물을 통해 우수상을 수상하셨나요?

A. 저희는 '제로웨이스트를 위한 다회용기 사용 활성화 방식 제안'으로 수상하였습니다. 코로나 19로 인한 세계적인 팬데믹 현상으로, 배달 등에 의존도가 상승하고 소비동향이 변화됨에 따라 일회용품 사용이 증가하고, 환경 오염이 극대화 된다는 점을 문제점으로 삼아, 다회용기를 개발하고, 다회용기 수거함을 개발하여 필요한 장소에 배치하고, 다회용기 수거함과 연동되어 사용자의 편리함을 돕는 애플리케이션, 홍보 영상을 함께 제작하여 탈 플라스틱과 함께 다회용기의 활용을 적극적으로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궁극적으로 제로웨이스트 실현을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Q 우수상을 수상했을 때 기분이 어땠나요?

A. 그간 고생했던 시간이 떠오르며, 저희 제로스틱스를 잘 이끌어 주신 지도 교수님과, 지지하고 함께 제로웨이스트 실현을 위해 연구했던 팀원들이 자랑스럽고 감사했습니다. 잊지 못할 경험이었습니.



시각영상디자인과 '제로스틱스'

Q 대회를 준비하면서 힘들었던 적이냐 기억에 남는 순간들이 있을까요?

A. 문제점에 대한 의견 취합의 과정에서, 다양한 의견들이 나와 그것들을 조율하고 방안을 모색하는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지도 교수님이 중심을 잡아 주시고 의견을 취합해 주시는 등,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Q 추후 캡스톤 대회에 관심을 가지고 준비할 학우들에게 해줄/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면?

A. 학생 입장에서 문제점을 인식하고, 그것을 풀어 내는 과정에서 팀원들과 협업하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함께 하나가 되어 문제를 풀어 내는 과정을 어렵다기보다는 잊지 못할 추억이라고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로웨이스트를 위한 다회용기 활성화 방식 제안



우수상과 우수 옥션왕을 수상한 제로스틱스

Q 마지막으로 팀원들에게 서로 하고 싶은 말씀 한마디씩 부탁드립니다!

A. 여수안 학생: 평생 잊지 못할 성과를 너희와 교수님과 함께 만들어 나가서 참 행복했어, 너무 고생했다. 앞으로 더 많은 일들이 있겠지만, 캡스톤 대회로 인한 이 기억들과 추억들은 절대로 잊지 못하고 살아갈 것 같아. 제로스틱스 파이팅!

A. 박수경 학생: 방학에도 학교에 나오는 것도 늦은 시간까지 남아서 하는 것도 힘들었을 텐데 다 같이 힘내 줘서 좋은 결과를 만든 것 같아! 그동안 너무 수고 많았고 고맙습니다!

A. 문희주 학생: 다들 처음이기에 많은 문턱이 있었는데, 우리가 그 문턱을 넘었기에 지금의 우리가 있는 거 같아! 다들 너무 수고 많았어! 그리고 좋은 추억과 경험을 만들어 줘서 고마워.

A. 박채원 학생: 더운 여름 방학에 다들 학교 나와서 작업하느라 너무 수고 많았고, 좋은 성과뿐만 아니라 즐거운 추억도 함께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 팀 제로스틱스 평생 잊지 못할 거야! 제로스틱스 사랑해.



산학협력체 디자인위즈와 회의하는 모습

A. 이기쁨 학생: 애들이 모두 고생했고, 좋은 추억 만들어 줘서 고마워. 제로스틱스 영원하자! 방학 동안 고생 많았어!

A. 장수진 학생: 여름방학 동안 학교에 나와서 열심히 작업하고 좋은 추억도 만들어서 행복했어! 제로스틱스 모두 고생 많았고 고맙습니다!!

최지연 기자 jjiyoun607@naver.com

혁신지원사업 챌린지 프로젝트 (SDGs) 특강



혁신지원사업 챌린지 프로젝트(SDGs)



특강을 진행하는 모습

우리 대학은 지난 11월 혁신지원사업 챌린지 프로젝트(SDGs) 특강을 진행했다. 유엔 총회에서 2030년까지 달성하기로 결의한 SDGs(-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지속 가능 개발 목표)는 전 세계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인류 공동의 17개 목표이다. 이번 특강은 SDGs에 대한 이해를 돕고, 학교 시스템과 지속 가능한 지역사회를 변화시키는데 필요한 지식과

전략을 전달하기 위해 제공되었다. 총 3회에 걸쳐 진행된 특강에 참여한 학생 중 신청자를 대상으로 SDGs 공유 확산을 위한 소그룹 연구 프로젝트를 운영한다. 본 프로젝트는 주 1회 2시간, 총 4회 진행하여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실천 목표를 공유한다. 프로젝트에서 선발된 학생은 12월 14일부터 16일까지 개최되는 전문대학혁신지원사업원·충청권 EGS 캠프에 참여한다.

박경희 기자 pkhcfilt@naver.com

카카오톡 마비가 지속된 이유는?



지난 10월, SK 판교 데이터센터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이번 화재는 지하 3층에 있는 배터리팩에서

전기적 요인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 소방당국에서는 화재 진압 시 감전과 열 폭발로 인한 재점화를 예방하기 위해 전원을 차단해야 한다고 알렸다. 이에 데이터센터 전원이 차단되면서 카카오와 네이버의 일부 서비스가 마비되었다. 특히 3만 2천대의 서버를 두고 있는 카카오는 메신저, 금융, 지도 등 주요 서비스들이 동시에 중단되었다.

당시 카카오는 ‘모든 데이터를 국내 여러 데이터 센터에 분할 백업하고 있으며, 이원화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라고 알렸다. 그러나 몇 시간 내에 복구될 수 있다는 예상과 다르게 약 5일이 지난 후 모든 서비스가 정상화되었다. 반면, 네이버는 동일한 데이터센터에 서버를 보유하고 있음에도 화재 당일에 서비스 대부분을 복구하였다. 전문가들은 두 회사의 상반된 복구 시간은 데이터센터 보유와 이중화 서비스 구축이 다르기 때문이라고 보고 있다. 판교를 메인 데이터센터로 삼고 있는 카카오와 달리 네이버는 춘천 데이터센터를 포함

하여 전국 각지에 데이터를 분할 저장하고 있으며, 이중화된 서버가 구축되어 있어 서비스 중단을 최소화하였다. 또한 네이버는 내년 상반기에 세종시에 제 2의 데이터센터를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과학기술통신부에서는 카카오톡과 네이버 등 대대 IT기업 서비스 장애는 국가 안보로 이어질 수 있는 디지털 재난으로 인식하고 재난 관리와 감독을 강화하겠다고 알렸다.

박경희 기자 pkhcf1t@naver.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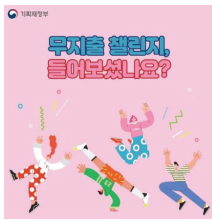
성탄절만 알고 있었나요?

12월의 다양한 기념일!

12월 하면 연말, 연말 하면 크리스마스를 떠올리기 쉬울 것이다. 12월 25일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기념일로, 영어로 그리스도(Christ)의 미사(mass)를 의미하는 법정

공휴일이다. 연말의 거리는 화려한 장식들과 캐럴 음악으로 우리를 들뜨게 하지만 12월에는 크리스마스 이외에도 3개의 법정기념일이 있다.

1. 12월 3일 소비자의 날!



기획재정부 제공

매년 12월 3일은 소비자의 권리 의식을 신장시키고, 소비자 보호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해 제정한 법정 기념일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최근 소비자 물가지수는 외환위기에 따른 환율 급등으로 물가가 크게 오른 1998년 11월(6.8%) 이후 24년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이고 있

다. 특히 소비자가 가격 변동을 민감하게 느끼는 생활물가지수는 7.9% 올라 상대적으로 경제력이 취약한 청년층의 부담이 커졌다. 이러한 물가 상승률로 인해 최근 청년층을 중심으로 무지출 챌린지가 확산되고 있다. 무지출 챌린지는 무소비를 목적으로 식비, 교통비, 앱테크, 중고거래를 활용하여 지출 제로(0)에 도전한다. 가계부를 작성하여 SNS에 일주일에 며칠 ‘무지출’에 성공했는지 인증하기 등 소비에 대한 트렌드를 만들어가고 있다.

2. 12월 5일 무역의 날!



원도균정 제공

무역의 날은 무역의 균형 발전과 무역입국의 의지를 다지기 위해 제정한 법정기념일이다. 우리나라가 처음으로 수출 1억 달러를 달성한 1964년 11월 30일을 기념하여 ‘수출의 날’로 지정해 매년 기념일 행사를 치러 오다가, 1990년부터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무역의 날’로 명칭을 변경하였다. 이후 2011년 12월 5일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아홉 번째로 무역규모 1조 달러를 달성한 것을 기념하기 위하여 2012년 10월 ‘무역의 날’을 12월 5일로 변경하였다.

3. 12월 27일 원자력의 날!



원자력안전위원회 제공

원자력 안전 및 진흥의 날은 원자력 안전을 고취하고 국내 원자력 분야 종사자의 사기를 일으키기 위해 제정한 법정기념일로 산업통상자원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원자력안전위원회가 돌아가며 기념 행사를 열고 있다. 자원이 거의 없는 우리나라는 전력을 생산하고자 1950년대 원자력법을 발효시키고 원자력 연구소를 설립했다. 전 세계적으로 탄소중립 시대를 맞은 가운데 우리나라의 원전 정책이 어떻게 변할지 원자력의 날을 통해 관심을 가져보는 것이 좋겠다.

최지연 기자 jiyoun607@naver.com



전기차

안전할까?

코로나19 이후 전 세계에서는 전기자동차 시장이 확대되며 급성장을 이루고 있다. 일반 자동차의 수출입은 감소했지만, 전기자동차의 수출입은 모두 증가했으며, 지속적인 시장의 확대가 예상되고 있다. 그러나 전기차 화재 문제는 끊임없이 언급되고 있다.

전기차 화재에는 다양한 이유가 있지만, 전기차는 기름으로 움직이는 내연기관 자동차와 달리 배터리로 움직인다. 배터리의 양극(+)과 음극(-) 사이를 이동하며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원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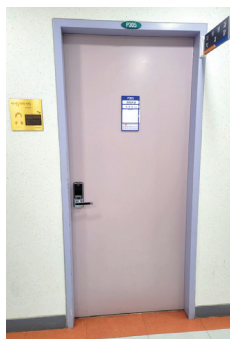
다. 양극과 음극 사이에 있는 보호막이 이온만 통과할 수 있도록 설계돼 있다. 두 극이 서로 닿으면 과한 전류가 흐르고, 이는 열을 발생시켜 불이 붙는 것은 일명 합선 현상이다. 전기자동차의 합선 현상이 일어나는 경우는 첫 번째로 배터리 내부 결함이 있는 경우, 두 번째 배터리 외부에 충격이 가해지는 경우이다. 이러한 경우로 합선이 일어났을 때는 배터리에서 발생한 열이 또 다른 열을 일으키며 순식간에 고온으로 폭주하는 열폭주 현상이 일어난다. 배터리에서 열폭주가 이어지면 엄청나게 강한 불길이 치솟게 된다.



현재 전기차 화재 예방 방안으로는 전기자동차의 올바른 관리 방법을 제조사, 사용자 모두 권장하고 익혀야 한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전기차 화재 방지를 위해서는 배터리 완충 비율을 낮춰야 한다고 조언한다. 전기차 화재는 100% 막을 수는 없다. 앞으로 배터리 자체의 품질을 높이고, 국가화재 안전기준을 마련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오에스터 기자 esther005153@gmail.com

교수연구실 출입문 교체 공사



지난 10월 15일부터 11월 12일까지 주말 동안 교수연구실 출입문 교체 공사작업을 실시하였다. 갑갑하고 무거운 분위기의 철문을 제거함으로써 환경이 개선됨을 기대할 수 있으며 트여있는 느낌의 유리 강화 도어로 학생들의 접근성을 높여 교수님과 학생과의 소통 강화를 위하여 34개의 교수연구실 출입문 철거 후 유리 강화도어로 설치하였다.

김성민 간사

(사진=FREEPIK 제공)

히잡의 진정한 의미

지난 9월 16일, 공공장소에서 히잡을 느슨하게 썼다는 이유로 체포되었던 22세 여성 마흐사 아미니가 숨진 사건이 알려지자 이란 전역에서 항의 시위가 일어나고 있다. 이란 당국에서는 심장마비로 사망했다고 밝혔으나, 유족은 건강에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고 반박했다. 더불어 경찰이 봉으로 머리를 구타했다는 증언이 알려지면서 도덕 경찰이 폭력을 행사하여 사망했다는 것이 증명되었다. 그녀의 장례식 이후 거리에서는

히잡을 벗어 하늘을 향해 히잡을 흔들거나 아미니의 사진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었다. 이 시위는 이란의 수도인 테헤란을 중심으로 들불처럼 퍼져 나갔으며, 한 달 넘게 지속되었다. 외신 언론은 이란 정부는 시위의 확산을 막기 위해 인터넷을 차단하고 시위대를 무력으로 진압하여 사상자가 발생한다고 알렸다. 이처럼 물리적 충돌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이 목소리를 내는 이유는 이란의 역사적 배경과 연관이 깊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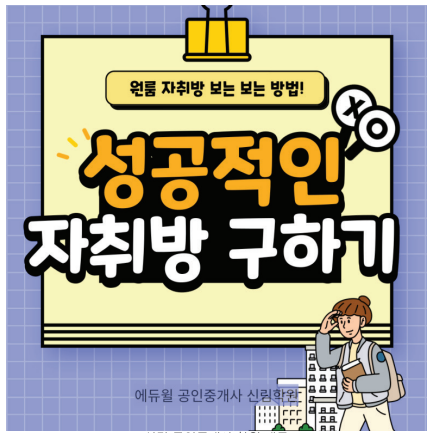
이란은 1979년 이슬람 혁명 이후 공공장소 복장을 의무화하였고 이슬람 성직자 출신인 에브라힘 라이시 대통령이 취임 후 도덕 경찰의 단속은 강화되었다. 도덕 경찰의 공식 명칭은 ‘지도 순찰대’로 부적절한 옷차림의 여성을 지도하는 특수 경찰 부대이다. 반면, 과거 팔라비 왕조 시기에는 여성의 사회 활동을 목표로 히잡을 금지하는 정책을 펼쳤다. 이러한 정책을 두고 이란의 여성들은 수치감과 노출된다는 느낌을 받는다고 호소

하였다. 두 법안은 상반된 내용을 담고 있으나 여성의 히잡 선택권을 존중하지 않는다는 공통점을 띄고 있다. 이를 보면 시민들이 시위를 통해 이루고 싶은 바는 히잡의 반대가 아닌 복장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 더 나아가 자유의 확대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박경희 기자 pkhcf1t@naver.com

어떤 집이 좋을까? 대학생 자취방 고르는 꿀팁!

통학은 지치고, 기숙사는 자리가 없고 내년엔 새로운 학기를 맞아 자취를 시작하려 해도 혼자서 좋은 자취방을 알아보기란 쉽지 않다. 이런 자취 초보들을 위해 자취방 계약 시 확인해 보면 좋은 꿀팁을 소개해 보려 한다.



1. 온라인으로 시세 알아보기

네이버 부동산을 검색하여 내가 원하는 지역/동네에 원하는 가격대를 쳐보면 내가 가진 금액대에서 계약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들을 확인할 수 있다.

2. 나의 우선순위 파악하기

교통, 가격, 주변 편의시설, 옵션, 엘리베이터 유무, 수납공간, 환기와 채광 등 필수적인 것부터 사소한 것까지 나의 우선순위를 고려해 봐야 한다.

3. 체크리스트 만들어가기

외풍, 수압, 채광, 소음, 누수, 곰팡이 등 체크리스트를 꼼꼼히 적어가고 이전 세입자에게 장단점을 물어보는 방법도 효과적이다.

CHECK LIST

- 창틀에 손 대서 외풍 확인하기
- 세면대, 변기 물 사용-수압체크
- 채광이 중요하다면 낮에 가기
- 소음 알아보려면 저녁-밤에 가기
- 추가 필요한 사항 요청하기 (도배,블라인드)
- 벽을 두드려보기
- 세입자가 있다면 장/단점 물어보기
- 화장실 창문이 있는지 확인

신림 공인중개사 학원 제공

4. 발품 팔기

최대한 많은 발품을 팔아야 선택권이 넓어진다. 또한 부동산 사무소를 고를 때에는 중개사무소의 자격증과 허가증, 공제증서를 확인하는 것이 좋다.

최지연 기자 jiyoun607@naver.com

혹시, 나 ... 번아웃 증후군인가?



계속 같은 일상을 반복하면서 무기력하고, 삶의 의미가 없다고 느끼셨던 적이 있으신가요? 살면서 한 번쯤 경험하게 되는 것이 바로 번아웃 증후군이다. 나의 상태가 번아웃에 머물고 있지는 않은지, 그렇다면 어떻게 극복하는 것이 좋을지 알아보도록 하자.

번아웃 증후군이란?

한 가지 일에만 몰두하던 사람이 신체적, 정신적 인 극도의 피로감으로 인해 무기력증, 자기혐오, 직무 거부 등에 빠지는 현상을 말하며, 주로 작업 환경에서 쓰이는 장기 피로와 열정 상실의 심리학 용어이다.

원인

관리할 수 없는 워크 로드, 직장 내 부당한 대우, 혼란스러운 업무 책임, 관리자의 소통 또는 지원 부족, 큰 마감 압박 등이 주요 원인이다.

어떤 이유에서든 스트레스를 받고 매사에 짜증이 나고 의욕이 없으며 무기력하고 두통 혹은 수면 장애에 시달린다면 번아웃 증후군 증상으로 의심해 볼 수 있다.

치료

약물보다는 좋은 식습관과 휴식 등 생활습관 교정과 스트레스 관리 등으로 이루어진다. 생활양식과 사고 방향의 전환이 필요하고 이완 반응, 인지 행동요법을 생활 속에서 꾸준히 실천하면서 건강을 바로잡는 것에 힘쓰는 것이 중요하다.

극복법

번아웃 증상이 나타나지 않도록 평상시 예방하는 것이 중요한 방법인 것 같다. 평소 잘 먹고, 잘 자고, 취미생활하고 휴식을 취하는 것이 탈진 증후군에 빠지지 않는 힘을 길러 줄 수 있다. 그러나 예방법, 극복법을 통해서도 나아지지 않는다면 심리 상담을 받아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1. 술, 담배, 커피 카페인 음료를 피한다.
2. 자주 옷을 습관을 기른다.
3. 음악 감상, 독서 등 취미 생활을 한다.
4. 적절한 체중을 유지한다.
5. 충분한 수면을 취한다.
6. 충분한 휴식시간을 확보한다.
7. 친구, 가족들과 만남을 갖고 관심 있게 대화를 나눈다.
8. 과도한 업무 목표를 설정하지 않는다.
9. 일주일에 2~3회 30분 이상 규칙적인 운동을 한다.

번아웃 증후군은 질병은 아니나 관리해야 하는 직업 증상으로 약물보다는 운동, 취미, 휴식으로 통해 증상을 치료, 극복할 수 있다.

강수민 기자 sumin8976@naver.com

건강한 녹즙 먹고 기생충 감염?

(사진=FREEPIK 제공)

기생충 감염 질환 중 '간질증'이라는 게 있다. 기생충의 일종인 '간질충'이 몸속으로 들어와 간을 거쳐 담도에 기생하면서 발생하는 질환이다. 이 질환은 감염 초기에 유충이 간에서 '호산구 성 농양'을 형성하는 게 특징이다. 기생충 감염으로 백혈구세포 중 하나인 호산구가 증가해 간에 고름이 생기는 것이다.

몸속으로 들어온 간질충은 성충으로 자라면서 담도로 이동해 담도 내에 살게 되는 게 일반적이다. 이때는 무증상인 경우도 있고, 막연한 복부 불편감이나 통증을 호소하기도 한다. 드물게는 담관염이나 황달 등을 일으킬 수 있다. 간질충 감염의 주된 원인으로는 한국 사람들이 즐겨 먹는 미나리가 지목된다. 미나리에 붙어 있던 간질충이 입으로 들어온 뒤 소장 벽을 뚫고 뱃속을 거쳐서 간을 찾아가고, 간에서도 몇 달간 성충으로 자라면 결국 담관에 들어가 병을 일으키게 된다. 또 소의 간을 날로 먹을 때도 간에 붙어있던 간질충이 사람에게 옮겨갈 수 있다. 그런데 최근에는 녹즙도 간질충 감염의 원인일 수 있다는 의심을 받고 있다.

11월 17일 국제학술지 '원 헬스'(One Health) 최신호에 따르면, 서울아산병원 감염내과 김민재 교수 연구팀은 2021년 1월부터 2022년 6월까지 간농양과 호산구 증가증으로 병원을 찾은 환자 30명(평균 나이 55.1세)에 대한 연구를 통해 녹즙 섭취가 간질충 감염의 원인일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 결과 간질충 감염군에서는 주기적으로 녹즙 배달 서비스를 받는 사람이 절반이 넘는 53.3%로 집계됐다. 반면 간질충 감염이 아닌 환자들은 아예 녹즙을 먹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녹즙을 먹지 않는 간질충 감염 환자들 의 대부분도 미나리나 다른 채소를 먹은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연구팀은 녹즙에서 직접적인 감염의 원인이 되는 기생충 피낭유충을 확인하지 못했기 때문에 추후 연구가 더 필요하다는 단서를 달았다. 전문가들은 기생충 감염 예방을 위해서는 채소와 육류, 생선을 익히고 음식물을 충분히 익혀 먹는 것이 좋다고 권고한다.

이채은 기자 chaechae973@naver.com

겨울 분위기가 물씬~ 트리 설치!

낮 풍경



공학교육관 앞

밤 풍경



겨울철 코로나 재유행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국내 누적 사망자가 3만 명을 넘어섰다. 위중증 환자 수도 두 달 만에 최다인 400명대 중반까지 늘었다. 겨울철 7차 재유행의 여파로 분석되는 바이다. 20일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국내 코로나19 누적 사망자는 이날 3만 31명으로 처음 3만명대에 진입했다. 국가별로 따지면 전 세계에서 35번째로 많은 수치다. 정부는 고령층의 동절기 코로나19 백신 추가 접종을 독려하기 위해 11월 21일부터 12월 18일까지 4주간 집중 접종 기간을 운영한다.

겨울철 재유행에 대비해 위중증, 사망 위험이 높은 60세 이상 고령층의 백신 접종률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접종 편의를 높이기 위해 사전예약이나 당일예약 없이 신분증만 지참해 병원에 가면 바로 접종을 받을 수 있도록 현장 접종을 시행한다.

접종자에게는 템플스테이 할인, 고궁,능원 무료 입장 등 혜택을 주고 접종률이 높은 지방자치단체에는 포상 등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하지만 이럼에도 불구하고 동절기 추가 접종률은 턱없이 낮은 수준이다. 이날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동절기 추가 접종률은 전체 인구 대비 5.9%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코로나19 고위험군인 60세 이상 고령층 접종률은 17.3%, 요양병원 등 감염취약시설의 접종률은 17.6%로 집계됐다. 당국은 치명률이 높은 고령층의 2가백신 추가 접종이 겨울철 재유행 방위에 중요한 요소라고 보는 입장이다.

박윤아 기자 parkyuna1211@naver.com

꼭 알아야 하는 공습경보 대처 방법

미사일과 관련된 도발이 이어지는 가운데 공습경보가 울렸을 때 어떻게 대처하는가?

공습경보가 발령되면, 자신의 위치와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민방위 주민대피시설로 최대한 신속하게 대피해야 하며 민방위 주민대피시설을 찾을 수 없는 경우에는 가까운 주변의 지하시설로 우선 대피해야 한다. 공습경보가 발령되었을 때 운행 중인 차량은 가까운 빈터나 도로 오른쪽에 세운 후에 신속하게 대피해야 한다. 대피할 때는 화생방 공격에 대비하여 방독면 등 보호장비와 같은 장비를 착용하시고 대피하시기 바랍니다. 대피장소에서는 질서를 지키며 계속해서 방송을

들으면서 행정안전부의 지시에 맞춰 움직여야 한다.

주간과 야간의 경우 공습경보가 울렸을 때 대처하는 방안이 조금 다른데. 모든 가정과 직장에서는 신속하게 옥내·외의 전등을 모두 끈 다음 대피해야 한다. 자신과 가까운 위치에 대피소를 찾는 방법은 '국민재난안전포털' 사이트에 접속해 도로명 주소 또는 행정동 주소를 검색하면 이용할 수 있는 대피소 위치를 조회할 수 있다. 위급상황에 즉각적인 대응을 할 수 있도록 사전에 대피소 찾기는 물론 각종 재난 시 국민 행동 요령을 알아두는 것이 좋다.

오에스더 기자 esther005153@gmail.com

포근포근 미담 이야기

유아교육과의 기부소식에 우리 모두 주목!



지난 11월 9일, 유아교육과에서는 9월에 진행된 학교 대표 축제인 대동제에서 부스운영을 통해 들어온 수입 30만원 전액을 '미혼모자가족복지



시설'인 '마리아의 집'에 기부했다고 합니다. 너무 훈훈한 이야기인지라 지금이 겨울인지 여름인지 모르겠네요. 예쁜 아이들과 함께해서 인지 마음씨도 굵고 예쁜 유아교육과 학생들! 칭찬합니다~

김성민 간사

도서관 이달의 책 '새해에 읽어야 하는 책'

2023년에는 '영어 공부를 해야지, 운동을 열심히 해야지'라고 결심을 했지만, 한 달 후 흐지부지되었을 것이다. 책을 통해 새해 결심

을 실천할 방법을 사례와 함께 알아봅시다. 사소해서 하찮게 느껴질 정도의 작은 반복을 통해 나의 일상을, 나아가서 삶을 변화시켜보자.



아주 작은 습관의 힘
: 최고의 변화는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제임스 클리어 저자 / 비즈니스북스 출판사 / 2019년 출간
소장위치: 도서관 1층 북큐브 권장도서
청구기호: 181.845 ㄱ876ㄴ

메이크 타임
: 구글벤처스의 혁신적 시간관리법
제이크 냅 저자 / 김영사 출판사 / 2019년 출간
소장위치: 도서관 2층 자료열람실
청구기호: 325.2112 ㄴ56ㄴ



진짜 게으른 사람이 쓴 게으름 탈출법: 이 모든 것은 인생이 망할 것 같다는 위기감에서 시작됐다!
지이 저자 / 마인드빌딩 출판사 / 2020년 출간
소장위치: 도서관 3층 자료열람실
청구기호: 818 ㅌ934ㅌ

내 삶을 변화시키는 감사의 기적
황성주 저자 / 정민미디어 출판사 / 2022년 출간
소장위치: 도서관 2층 자료열람실
청구기호: 199.1 ㅎ757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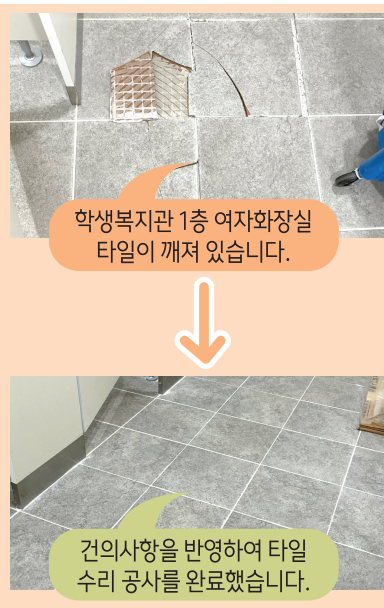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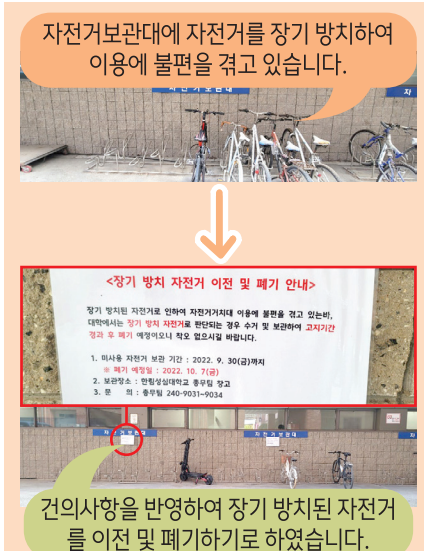


인생에서 너무 늦은 때란 없습니다: 모리스 할머니 이야기
애나 메리 로버트슨 모리스 저자 / 수오서재 출판사 / 2017년 출간
소장위치: 도서관 3층 자료열람실
청구기호: 650.99 ㄴ568ㄴ

한림성심세이버! 학교를 지켜주세요!

김성민 간사

시설물개선



위생



한림성심대 연간행사



2월

2022학년도 입학식 개최
강원디자인진흥원과 LINC 3.0 운영 협약 체결
춘천상공회의소와 LINC 3.0 운영 협약 체결



3월

1차 인성아카데미(우형식 총장 특강)
75%의 높은 취업률 기록
간호학과 5년 연속 100% 합격



4월

개교 83주년 및 식목일 기념행사
'2022년 입시정책 자문 위원단' 위촉식
“꿈을 실어 나르는 배” 제작



9월

3년만에 열린 한빛 대동제
'총장과 대화' 특강 열려
2022 춘천커피도시페스타
미래인재 리더십 프로그램



8월

2021학년도 후기 졸업생 학위 수여
2군단 군사경찰단과 산학협력 협약 체결
고등직업교육거점지구 사업(HiVE) 출범식
김진호 시의장님, 신경호 강원도교육감님 방문



6월

고등직업교육거점지구(HiVE) 사업 선정
제77회 구강보건의 날 기념 행사
2022 교원 역량강화를 위한 하계연수
'간식데이' 행사 진행



5월

3단계 산학협력 선도전문대학 육성사업(LINC3.0) 선정
인성아카데미 프로그램 운영
레저스포츠과 김보경 학생 한국 여자수구 국가대표 발탁
56회 한빛체육대회 동아리제 개최



10월

의무행정과 제39회 추계 학술제
2023학년도 신입생 모집 수시1차 면접
교직원, 영월 운탄고도 트래킹 실시



11월

'2022 한림성심 산학협력 EXPO' 진행
산학협력 엑스포(EXPO) 4개 부문 수상
관광외식조리과 국제요리대회에서 금상 수상
유아교육과 제28회 학술제 실시
방사선(학)과 방사사의 날 성료
캡스톤디자인 전국 경진대회 우수상 수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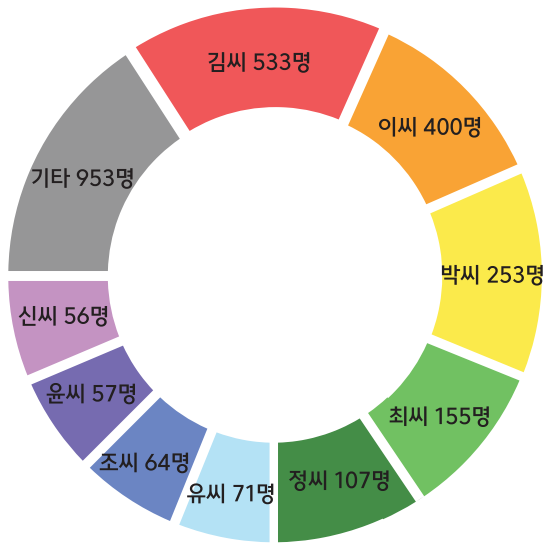
12월

기말고사 격려 간식데이
원데이 취업캠프
지역사회 문제해결 프로젝트 헬스케어 나눔 행사



우리 대학 재학생의 이름 관련 깜짝 조사

Q 어떤 성씨가 제일 많을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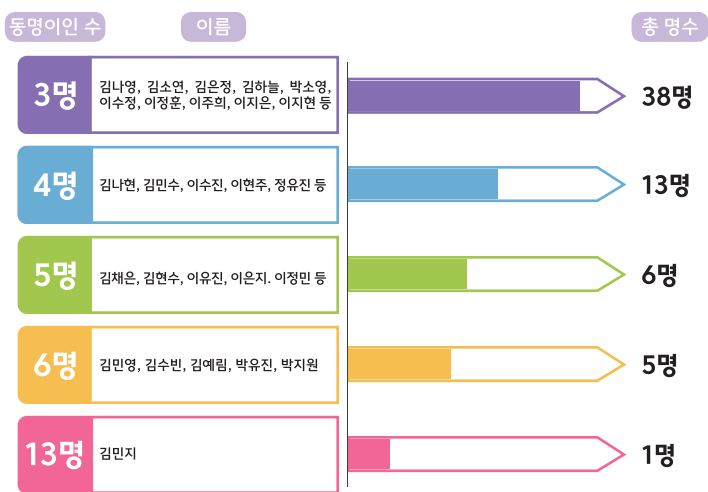
우리 대학은 현재 2652명의 많은 학생들이 재학중이다. 이 학생들 중에 어떤 성이 제일 많은지, 동명이인은 얼마큼 되는지 궁금해본 적이 있는가? 그래서 한 번 우리 대학 학생들의 이름을 조사해 보았다.

한림성심대학교 대학생 대상으로 조사해 본 결과 제일 많은 성씨는 김씨였다. 그 뒤로는 이씨, 박씨, 최씨 등 흔히 많이 들어본 성씨들이 뒤를 이었다.

한국에서 제일 많은 성씨인 김이박과 같은 순서로 되어있는 것이 흥미로운 사실이다.

동명이인 또한 조사해 본 결과, 전체 재학생 2562명 중 603명이 동명이인이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최소 2명 이상이 이름이 같다는 것이었다. 동명이인이 2명인 이름은 너무 많아 표에는 3명 이상부터 표시해두었다. 김나영, 김소연 등 학교에 중복되는 이름이 3명인 학생의 수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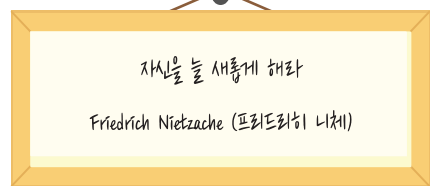
Q 가장 많은 동명이인은?



총 38명, 김나현, 김민수 등 학교에 4명과 이름이 같은 사람은 13명, 김채은, 김현수 등 5명과 이름이 같은 사람은 6명, 김민지라는 이름을 가진 학생은 13명으로 나타났다. 상대적으로 여학생의 비율이 남학생보다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성을 제외한 상위 이름은 높은 순으로 유진, 수빈, 민지인 것으로 나타났다.

김성민 간사

한 줄 격언, 공감 한 가득



과거에 틀림없는 진실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지금은 잘못된 것으로 여겨지는 경우가 있다. 또, 과거에 자신의 확고한 신조라고 여겼던 것이 이제는 아닐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 때도 있다. 이와 같은 변화를 자신이 어려서, 깊이가 없어서, 세상을 몰라서라는 이유로 묻어두지 말아야 한다. 그 시절의당신에게는 그렇게 사고하고 느낄 필요가 있었기 때문이다. 인간은 늘 껍질을 벗고 새로워진다. 그리고 새로운 생을 향해 나아간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는 필요했던 것이 지금은 필요 없어지게 되어버린 것에 불과하다. 스스로를 비판하고 돌아보는 것과 타인의 비판에 귀 기울이는 것은 자신의 껍질을 벗는 일과 다름이 없다. 한 층 새로운자신이되기위한탈바꿈인것이다.그렇기때문에모두가자신을 항상 돌아보고 매 순간 새로운 내가 될 수 있도록 발전하길 바란다.

김지석 기자 ging2525@naver.com

1년동안 학보를 위해 수고해주신 ● 학보사 구성원 소개와 소감문 ●

“ 김성민 / 간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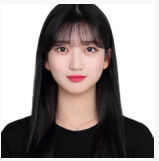


지난 2년간 코로나19로 많은 활동들이 제한을 받았던 것과 반대로 아직 완전히 종식된 건 아니지만 올해는 코로나 상황 이전과 비교될 만큼 다양한 활동들이 교내-외로 진행되었습니다. 그리고 자랑스럽게도 학보사 8명의 기자님들은 열정과 에너지를 가득 쏟아 그러한 활동들을 기사로 전부 담아 내어 독자님들을 만족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274호 까지 달려왔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학보사는 1,000호, 10,000호를 넘어 대학의 역사와 학생들의 생각을 담아 알리는 소통 창구로서의 학보사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올해 새로이 학보사의 키를 잡아 이끌어 와주신 이하영 교수님께 환영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재미와 감동을 위해 마지막면을 멋지게 장식해 주시는 웹툰 작가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김가은 편집기자님 특히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내년에는 학보 디자인이 심심하다는 얘기가 있으니 틀을 완전히 한번 바꿔보자구요! ^^

끝으로 한 사람의 국민으로서 이태원 참사 피해자분들께 깊은 애도를 표하며,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 최지연 / 편집장



학생기자로서 10개월, 편집장으로서 10개월을 학보와 함께 했다. 학교에 갓 입학했을 때부터 시작해서 2학년을 마무리하는 이 시점에 되돌아봤을 때 가장 많은 경험을, 성장을, 즐거움과 도전을 안겨준 학보사에 감사한 마음이다. 때로는 학업에 지쳐, 마음대로 풀리지 않는 일들에 속상했던 날도 있었지만 서로 돕고 위해주는 우리 학보사와 매달 발행했던 학보를 볼 때면 든든한 마음으로 버틸 수 있었다. 우리 다 같이 지금까지 수고했고 앞으로도 더 수고합시다! 학보 사랑해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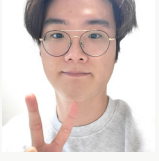
“ 강수민 / 학생기자



안녕하세요 올해 3월부터 학생기자로 활동한 강수민입니다. 새로운 환경에서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고 한 번도 써보지 않았던 기사를 작성한다는 것이 처음에는 정말 두렵게만 느껴졌습니다. 큰 격정과 다르게 너무 좋은 분들과 함께 하여 편하게 활동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기사를 쓰기 위한 주제를 선정하고 내용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유익한 정보를 드리기 위해 항상 열심히 고민했습니다. 아직 부족한 점이 많은 듯 보이지만 저는 학보사의 학생기자로 많이 성장하였습니다. 모든 학생기자님들이 항상 열심히 참여하시어 좋은 기사들을 만들어 내지만 저희 뒤에는 편집장님, 간사님, 주간 교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더 완벽한 학보사를 만들 수 있었습니다. 한 해 동안 한림성심 학보를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 더욱 멋진 학보사가 나올 수 있게 응원해 주시고 관심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김지석 / 학생기자



안녕하세요. 영상미디어콘텐츠과 2학년 김지석 기자입니다. 저는 올해 4월에 신입 기자로 들어와 1년간 학보사에서 기자로 활동하였는데, 평소 기사를 보기만하고 직접 써볼 기회가 없어서 내가 제대로 활동할 수 있을까 싶었지만, 그런 걱정과 다르게 1년간 재밌게 기사를 잘 써왔던 것 같습니다. 기자 활동을 하면서 뉴스나 화제 거리를 더 찾아보기도 하고, 어떤 기사를 써야 학생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정보나, 재밌게 볼 수 있는 기사를 쓸 수 있을까 고민하면서 기사를 썼었는데, 학생 여러분께서 관찮게 읽으셨을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올해 복학 후 학교생활을 좀 알차게 보내고 싶어 학보사에 지원했는데 좋은 경험과 추억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비록 올해 졸업이라 이번호로 마지막 기사를 쓰게 되었지만, 앞으로도 저의 성실학보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학보사에 관심 있으신 학생분들이 계시다면 한번 학생기자로 도전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친절한 간사님과 교수님, 그리고 학생기자님들이 도와주실 겁니다! 감사합니다!



“ 박경희 / 학생기자



안녕하세요. 지난 4월부터 학생 기자로 활동한 박경희입니다. 처음 기사를 작성할 때는 걱정을 많이 했었는데 어느새 2022년 마지막 기사를 작성하고 있어 매우 뿌듯합니다. 누군가 일년 동안 가장 의미 있는 일이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저는 망설임 없이 학생 기자 활동이라고 답할 것 같습니다. 학보사에서는 직접 주제를 선정하여 기사를 작성하는 일 이외에도 웹툰 제작과 방송국과 협업하여 영상 제작을 맡고 있어 다양하게 경험해 볼 수 있었습니다. 올해는 대부분 대면으로 진행되어 취재하는 과정이 더 즐거웠습니다. 매달 기사를 작성하는 게 어려울 때도 있었지만, 주변에서 아낌없는 조언과 지원을 해준 덕분에 올해 마지막까지 잘 마무리 지을 수 있었습니다. 한 해를 함께 해 온 기자님들과 김성민 간사님, 이봉숙 교수님과 앞으로 학보사를 이끌어주실 이하영 교수님 모두 감사합니다. 더불어 학보 잘 보고 있다고 응원해준 친구들에게도 고맙다고 전하고 싶습니다.



“ 박윤아 / 학생기자



학보사와 함께한 시간이 1년이 다 되어간다. 지난 1년동안 학우분들께 유익한 정보를 제공해주었는지 궁금하기도 하고 걱정도 된다. 하지만 무엇보다 지난 1년은 나에게 정말 도움이 많이 되는 시간이었다. 기사를 쓰면서, 특강을 들으면서 나를 한층 더 성장하게 하고 많은 것들을 배울 수 있는 정말 가치있는 시간이었다. 앞으로도 학보사와 함께 다양하고 풍부한 학교 생활을 이어나가고 싶다 !!!!



“ 심원보 / 학생기자



안녕하세요. 영상미디어콘텐츠과 심원보 기자입니다. 이제 2022년도 한 달 정도 남았네요. 올해도 정말 빠르게 지나갔고 벌써 새로운 2023년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2023년은 '검은 토끼해'로 특별한 일이 없으면 내년 봄에 실내 마스크를 해제한다고 합니다. 아직 조금은 우려스럽지만, 한편으로 다시 예전처럼 돌아갈 수 있다는 생각에 기대가 됩니다. 올해 학보에서는 장학금 소식 2개를 포함한 탄소 중립 실천 포인트, 애플 뉴스 기사를 굉장히 유용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나 가장 기억에 남는 기사는 아무래도 체육대회 기사입니다. 지난 5월 경희 기자와 함께 비대면에서 3년 만에 돌아온 한빛제 대면 행사로 인터뷰 준비부터 실행까지 열정적으로 했고 그 결과 기사 한 면을 꼭 채울 수 있었습니다. 내년에도 다양한 학보 활동을 하고 싶지만, 아쉽게도 졸업을 하게 되어 학보 활동은 274호에서 멈추게 되었습니다. 처음 지연 편집장과 함께 동기로 들어와서 인턴 기자로 첫 웹툰을 같이 제작했던 것이 었그제 같은데 어느새 편집장이 되어서 잘 이끌어가고 있는 모습을 보니 자랑스럽습니다. 앞으로도 잘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전반기에 학보를 빛내준 이봉숙 교수님과 늘 학보를 위해 애쓰시는 김성민 간사님, 새롭게 변화하는 학보를 만들어가는 이하영 교수님과 함께 할 수 있어서 즐거웠고 고맙습니다! 저와 함께 활동한 기자님들 그동안 고생 많으셨고 모두와 함께할 수 있어서 영광이었습니다. 한림성심대학교 학보사에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화이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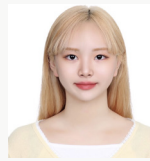
“ 오에스더 / 학생기자



안녕하세요 272호 학보부터 기자로 활동하게 된 유아교육과 1학년 오에스더입니다. 처음 기자로 활동하게 되었을 때는 모든 게 걱정이었지만, 기대감이 가득했는데요. 활동하면서 제 삶에서는 많은 변화가 생겼던 것 같습니다. 기사를 처음 썼을 때는 모든 것이 새롭고 낯설어서 학보사 기자님들의 도움을 많이 받고 오랜 시간 고민도 하며 머리를 싸매며 마감했던 기억이 납니다. 하지만 아이디어를 생각해내고, 기사를 쓰고, 취재하면서 한층 더 생각이 깊어지기도 하고 학생들에게 어떤 정보를 주면 더 도움이 될까 생각하는 사람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물론 정보를 전달하는 일에 있어서 제가 더 배운 것이 많은 것 같습니다. 또 과 안에서만 활동하는 것이 아니라 한림성심대학교 전체를 폭넓게 관찰하며 관심을 갖게 되기도 했습니다. 학보사를 통해 저는 한림성심대에 들어와서 경험할 수 있는 것들을 많이 경험한 것 같습니다. 교수님과 학보사 학생기자분들, 간사님과 함께해서 매우 영광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드립니다고 꼭 말씀드리고 싶고, 내년에도 잘 부탁드리다고 전하고 싶습니다. 더 성실한 기자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이채은 / 학생기자



안녕하세요. 저는 한림성심대학교 간호학과 2학년 재학 중인 학보사 학생기자 이채은입니다. 저는 지난 11월에 학보사에 들어와 지금까지 기자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어떤 주제를 선정하고, 어떻게 기사를 작성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하지만 학보사 기자로서의 경험이 1년이 지난 지금 저를 더욱 성장하게 해준 것 같습니다. 기사 활동을 하면서 현직 기자의 특강도 듣고 학보사가 아니었다면 결코 얻을 수 없는 것들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기사 작성을 위해 학교의 소식들에 관심을 가지면서 학생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학교의 정보를 기사로 쓰면서 뿌듯했습니다. 지금까지 많은 기사들을 작성하면서 머리로는 생각하던 것들을 정리해서 글로 표현하는 실력이 늘었습니다. 이번 해 마지막 호 기사를 쓰면서 후련하기도 하고 시간이 너무 빠르게 흘러간 것 같아서 아쉽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일년동안 함께 활동한 교수님, 간사님 그리고 학생 기자님들 너무 감사드립니다! 한림성심학보사 화이팅!



“ 김가은 / 편집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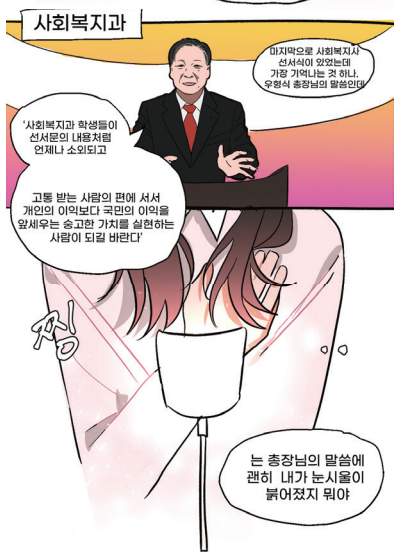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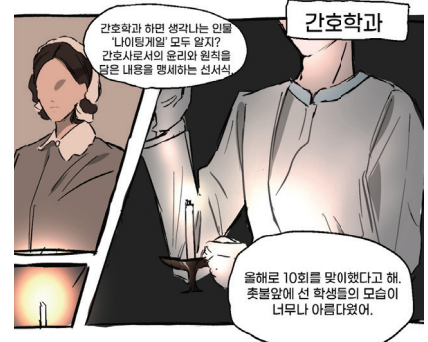
안녕하세요 한림성심학보 편집기자 김가은입니다. 올해 학보부터 디자인을 시작해서 어느덧 12월호까지 만들었네요. 3월에는 12월호까지 만드려면 한참 멀었다고 생각했는데 금방 지나간 것 같습니다. 학보를 만들면서 많은 도움을 받았는데요 먼저 270호까지 학보사를 맡아주신 이봉숙 교수님 처음 학보를 만드는 거라 많이 서툴렀을 텐데 열심히 피드백을 주시면서 성장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271호부터 함께 해주신 이하영 교수님 제가 자주 연락하셔서 귀찮으셨을텐데 항상 화내지 않고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학교 다니면서 기자일 하는 게 쉽지 않을 텐데 열심히 기사를 작성해주시는 기자님들께도 감사합니다. 그리고 홍보 업무랑 학보 업무에 묻혀 사시는 김성민 간사님 감사하고 내년에는 더 업무가 많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학보를 보는 모든 분들께도 감사하다는 말 드립니다.



한림성심대의 한 해를 돌아보며

글: 박경희 / 이채은
그림: 김호양 / 장예지

이제 2022년도도 다 가고 2023년도를 맞이할 때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다들 2022년도를 잘 보내셨나요?
이번호는 2022년도의 한림성심대학교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는지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이 밖에도 별시반 시민 관제상 나 나눌 수 없었던 섬 양해 바라며,
2023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항상 건강하고 즐겁게
학업에 임할 수 있는 한림성심인이 되길 바랍니다!

